

各国の伝統家屋と訪問マナー

我々3グループは日中韓の伝統家屋と訪問する時のマナー等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1 訪問時持って行くもの

- 日本 : お菓子など食べ物を持って行くことが多い。
- 中国 : お酒、タバコ、フルーツなどを持って行く。
- 韓国 : ティッシュ、洗剤、お酒など。

2 プレゼントを渡すタイミング

- 日本 : 部屋で渡しプレゼントを入れてきた紙袋などは持って帰る。
- 中国 : リビングで渡します。
- 韓国 : 玄関で渡す。

3 家に入る時

中国や韓国は入る時靴を脱いでそのまま整理しておくが
日本は脱いだ靴を整理し下駄箱の方に揃えておく。

4 招待した側のもてなし方

- 日本 : お茶、和菓子、お煎餅等を出す。
- 中国 : お茶かジュース、果物などを出す。
- 韓国 : 砂糖とミルクを合わせたコーヒー、果物等を出す

まとめ : 我々は話し合いの中で他人の家に訪問する時常識範囲内でマナーを守ろうと
気をつけている姿勢であれば必ず相手もそれに気づき心からもてなしてくれる
だろうと考えました。

このレポートの内容は我々3グループ員の発言に基づいたものであり、
正しいかどうかより今各自でどうやっているかに対するレポートです。

櫻田香奈 菅沼望 矢ノ倉孝行 山井瑞稀 吉岡海咲
楊 培元 楊 培玉 グックユジョン キムユヨン チェソンギ

日本、韓国、中国の違い

区分	日本	中国	韓国
違う点	<input type="checkbox"/> 家賃システム -東京で一人暮らし： 4～6万円くらい	<input type="checkbox"/> 家賃システム -上海で一人暮らし： 3.5万円くらい	<input type="checkbox"/> 貸切システム -ソウルで一人暮らし： 2年間の保証金は200万円 くらい、家賃無
	<input type="checkbox"/> 暖房システム： エアコン、ストーブ等	<input type="checkbox"/> 暖房システム： エアコン、ストーブ等	<input type="checkbox"/> オンドルシステム ガス、油を使うボイラー
似てる点	<input type="checkbox"/> 訪問の時 マナー -品物：客間 -玄関であいさつする -靴をお客さんが直す	<input type="checkbox"/> 訪問の時 マナー -品物：クティン -外まで出て迎える -靴をお客さんが直す	<input type="checkbox"/> 訪問の時 マナー -品物：サランチェ -外まで出て迎える -靴を主人が直す
	<input type="checkbox"/> 客間：入り口から一番遠い所に上座がある <input type="checkbox"/> 引っ越しの時近居の人たちが挨拶する		

金宰瑢(キムジェヨン) 佐藤良美 薛家慶 平松麗菜 戸笹沙和

新藤絵津子 金ハンソル 鄭知慧(ジョンジヘ)

家に関する文化の比較

今回の話し合いのテーマは各国の家に関する文化の違いでした。私たち 1 グループは各国の家賃の違い、引越しの後隣人にあげるものの違い、そして新築祝いのため人の家を訪問した時のマナーの違い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ワンルームの家賃

日本（都内、駅近）：最初に賃貸の契約をする時、約10万円くらいの敷金、礼金（家賃の1ヶ月分）を払います。敷金は解約の時、返してもらいますが、礼金は大家に部屋を貸してくれたお礼として払うものなので、解約しても返してもらえません。基本的に家具類はついていませんが、レオパレスのような物件などは家具がつい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

韓国：家賃は約5万円くらいだけど、家賃とは別に100万円くらいの保証金を払うところが多いです。保証金なので解約の時に返してもらいます。洗濯機・冷蔵庫などの基本的な家具はついていているところが多いです。チョンセという制度があり、大金を払うことによって2年間家賃が無料になり、解約時に全額返してもらいます。

中国：家賃は約4万円くらいで敷金、礼金はないです。韓国と同じで家具がついているといます。家賃の支払いは日本のように1ヶ月ごとではなく、3ヶ月ごとに支払います。

引越しについて

引越しをして挨拶をするのかという話し合いでは日中韓ともに最近の若い人は挨拶には行かないという意見でした。引越しの挨拶をしたことがないので何を渡したらいいのか、何を渡したら駄目なのかよくわかりませんでした。

日本：昔から「引越しそば」を渡すといいます。これは「これから長くお付き合いください」という意味ですが、最近では渡す人があまりいません。また、火を連想させるものを送っては駄目だという話もありました。1, 3, 9の付く日が引越しにはよくないです。

韓国：昔から引越した後隣人に渡したものが「シルトック」というもちです。「シルトック」は小豆の色なので赤色を連想させ、悪いものを振り払うという意味で渡すといいます。旧暦で9と0の付く日に引越しをするのはよくないとされています。

中国：果物を渡します。中国は引越しの日を気にする人はあまりいませんが、年配の方は

偶数に引越しをすることがいいと言っています。

新築祝いの挨拶について

日本：挨拶をするために他人の家に行くことはないのでよくわかりません。基本的なこととして靴は揃えてあがります。実際には冬の場合は着ているコートを時玄関先で脱いでからチャイムを鳴らします。中で靴を揃えるときに相手にお尻を見せないようにして靴を揃え、げた箱の前に置くのが正しいマナーだそうです。

韓国：新築祝いの挨拶というより引越した人が新居に人を招待する場合があります。主人は食べ物などで客をもてなし、客は洗剤やティッシュなどを手土産として持っていきます。家に入る時は靴を揃えますが、向きはあまり気にしないことが多いです。

中国：家庭によって靴を脱がなかったり脱いだりします。そして、韓国、中国はスリッパを家によって用意されていたり、されていなかったりします。日本は用意してあるのが多いです。

また、友達の家遊びに行った時に年配の方に挨拶をするのかという話し合いでは日本、中国ではわざわざ挨拶には行かない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です。その場で見かけたら挨拶をする程度だそうです。韓国では人によって違いますが、年配の方に挨拶に行くそうです。やはり今回も他人のお宅に挨拶に行ったことがないので話し合いはとても難しかったです。他国の文化を比較するには母国の文化も理解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改めて思いました。

梅津春菜 加藤凧沙 金井茂樹 笹森美玖 夏双双 金殷美 姜順好 李臣鎬

각국의 전통가옥과 방문매너

저희 3 그룹은 한중일 3 국의 전통가옥과 방문시의 매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방문시 지참하는 선물

한국 : 휴지, 세제, 술 등
중국 : 술, 담배, 과일 등
일본 : 과자 등 음식을 들고가는 경우가 많다.

2 선물을 건네주는 타이밍

한국 : 현관에서 건내준다.
중국 : 거실에서 건내준다.
일본 : 방에서 건내주고 선물을 넣은 종이가방 등은 도로 가져 간다.

3 집에 들어갈때

한국이나 중국은 들어갈때 신발을 벗은채로 정리해두지만
일본은 벗은 신발을 정리해 신발장 아래쪽에 정리해 둔다.

4 초대한 측에서 손님들 대접할때

한국 : 커피믹스와 과일등을 낸다.
중국 : 차나 주스와 과일등을 낸다.
일본 : 차나 화과자 전병 등을 낸다.

정리 : 저희는 이야기를 통해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상식범위안에서 매너를 지키려고 신경을 쓴다면 상대도 그것을 알아채고 성심성의껏 대접을 해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레포트의 내용은 저희 3 그룹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그것이 맞는가 어떤가보다 각자가 현재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사쿠라다 카나, 스가누마 노조미, 야노쿠라 타카유키, 최성기,
야마이 미즈키, 요시오카 미사키, 양배원, 양배옥, 국윤정, 김유영

일본, 한국, 중국의 문화 차이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틀린점	<input type="checkbox"/> 월세시스템 -도쿄에서 1명이 살때 :4~6만엔 정도 <input type="checkbox"/> 난방시스템: 에어컨,난로 등	<input type="checkbox"/> 월세시스템 -상해에서 1명이 살때 :3.5만엔 정도 <input type="checkbox"/> 난방시스템: 에어컨,난로 등	<input type="checkbox"/> 전세시스템 -서울에서 1명이 살때 :보증금 200만엔정도, 월세 없음 <input type="checkbox"/> 온돌시스템: 가스,기름을 사용한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방문시 예절 -이사 국수 -현관에서 인사 -신발은 손님이 정리	<input type="checkbox"/> 방문시 예절 -직접 만든 요리 -밖에 나가서 맞이함 -신발은 손님이 정리	<input type="checkbox"/> 방문시 예절 -시루떡 -밖에 나가서 맞이함 -신발은 주인이 정리
같은점	<input type="checkbox"/> 입구에서 가장 멀리있는 자리에 상석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이사했을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인사함		

집에 관한 문화의 비교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각국의 집에 관한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저희 1 그룹은 각국의 방세의 차이, 이사한 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음식의 차이, 그리고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매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원룸의 방세

일본 (도쿄, 역 근처) : 처음에 방을 계약할 때, 약 100 만원 정도의 '시키킨, 레이킨'을 지불합니다. '시키킨'은 방을 해약할 때에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레이킨'은 방을 빌려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지불하는 돈으로 방을 해약할 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룸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구는 없습니다만, 레오파레스와 같은 곳 등은 가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 : 월세는 약 50 만원 정도입니다만, 월세 이외에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 만원 정도를 내는 곳이 많습니다. 보증금이므로 해약할 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등의 기본적인 가구는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큰돈을 한번에 지불하는 것으로 2 년간 월세를 내지 않고, 해약할 때에는 처음에 지불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 방세는 약 40 만원 정도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방세를 지불할 때는 1 달씩 내는 것이 아니라, 3 개월에 한번 3 개월 분을 지불합니다.

이사에 대해서

이사를 한 후 인사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한중일 모두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인사를 하러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 인사를 한 적이 없어서 무엇을 건내면 좋은지, 무엇을 건내면 안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 : 예로부터 '이사 소바'를 건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길게 잘 지냅시다'라는 의미입니다만, 요즘은 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불을 연상시키는 것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3,9 가 들어가는 날은 이사하기에 좋지 않은 날입니다.

한국 : 예로부터 이사한 후 이웃에게 건내는 것이 '시루떡'입니다. '시루떡'은 팔색이어서 붉은색을 연상시키고, 이것이 나쁜 것을 쫓는다고 하여 이웃에게 돌린다고 합니다. 음력으로 9와 0 이 들어가는 날짜에 이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 과일을 줍니다. 중국은 이사하는 날짜를 신경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 짝수인 날에 이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사를 축하하는 매너에 대해

일본 : 인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너로는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겨울에는 입고있던 코트를 현관 앞에서 벗고, 벨을 누릅니다. 안에서 신발을 모아둘 때에는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신발장 앞에 정리해두는 것이 바른 매너라고 합니다.

한국 : 이사를 축하하기 위한 인사라고 하기보다 이사한 사람이 새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은 음식 등으로 손님들은 대접하고, 손님은 세제나 화장지 등을 선물로 가져갑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둡니다만, 방향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 가정에 따라 신발을 벗거나 벗지 않거나 합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은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만, 일본은 준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에 웃어른에게 인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일본, 중국에서는 일부러 인사를 하러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웃어른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타인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없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려면 자국의 문화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메즈 하루나, 카토 나기사, 카나이 시게키, 사사모리 미쿠, 카소우소우,
김은미, 강순호, 이신호